"우리네 전통 서정·리듬의 김소월 시 매료"

명사의 서재

⓲ 최영미 시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잊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 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잊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선운사에서')

최영미(52) 시인. 1994년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시집의 주인공이다. 회화적 이미지와 냉소적 시각이 담긴 첫 시집으로 그녀는 일약 문단의 '스타'로 떠오른다.

그 뿐인가. 서울대 서양사학과와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한, '가방끈' 긴 시인이라는 수사가 덧붙여져 대중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된다. 어떤 이들은 부러움과 시샘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비평'이라는 날선 언어로 표현하기도 했다.

일부 글쟁이들의 평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 이면에 시인이 이렇게 화려한 학벌을 지녀도 되는 것인가, 그 '가방끈'이 문학성을 얼마나 담보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껏 6권의 시집, 산문집, 소설집, 번역서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쉬우면서도 간결하고, 지적이며 깊이와 통찰이 담긴 작품은 잔잔한 여운을 준다. 적어도, 그녀의 글이 학벌에 기댄 '졸작'이 아님을 방증한다.

시인은 근래에 문예 계간지 '문학의 오늘'에 장편 소설을 연재중이다. 등단 20년 만에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고 있다. 연재물 '토닉 두세르'는 명품 화장품의 화장수에서 차용했다. 소설 연재로 바쁜 시인을 최근 서울에서 만났다.

"토닉 두세르는 랑콤의 화장수 이름이다. 80년대 운동권 주위를 맴돌던 여대생 진주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토닉 두세르는 운동 현장에서 멀어진 진주가 화장품을 바르면서 갖는 죄의식을 상징한다."

시인은 80년대를 좀더 객관적인 거리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 연재를 시작했다. 첫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가 출간된 후 386세대와 관련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시인은 '정면으로' 그 주제에 대해 쓴 적은 없다.

"나는 386을 대변하지도 않았고 '서른 잔치는 끝났다'가 '운동은 끝났다' 의미로 쓴 것도 아니다. 물론 '운동'을 제대로 한 적도 없다. 나는 단지 잔치가 끝난 시점의 심상을 노래했을 뿐이다. 시에 묘사되는 '잔치'는 말 그대로 잔치일 뿐 '운동권'과는 거리가 있다."

첫 시집이 발간된 후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운동권을 폄하했다는 비판에서부터 시대의식이 없다는 일침까지. 어쩌면 그것은 시를 해석하는 관점 때문이었을 것 같다. 시인은 비유를 썼는데, 독자는 직접적으로 읽고, 역으로 직접적으로 썼는데, 저편은 비유로 읽고, 문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감당해야 할 숙명인지 모른다.

"왜 잔치가 끝났느냐고 묻는 이들은 자신들을 운동권의 적자라고 생각해요. '잔치'를 '운동'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거지요. 백번 양보해 그 해석이 맞다 해도 애지중지하는 잔치라면 누군가 끝내자고 해서 끝낼 문제는 아니잖아요."

90년대 한국 사회는 이전의 80년대와는 다른 시대였다. 거대담론이 이전 세대를 지배했다면 90년대는 욕망과 소비로 대변되는 개인의 미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렇다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 당대 사람들의 삶을 그려내는 것이 문학이라면, 문학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다.

문학적 에너지 체득 김수영 시 애송

'서른 잔치는 끝났다' 등 시집 6권 펴내

'몽골비사' 관심…연재소설 집필중

"여고 시절에 김소월의 시를 좋아했어요. '진달래꽃', '산유화', '초혼', '엄마야 누나야' 등과 같은 시를 외우곤 했죠. 소월의 시는 우리의 전통 서정과도 맞닿아 있구요."

시인은 전통적인 정서와 율격을 지닌 소월의 시에 매료되었다. 특유의 리듬감 때문에 외우기도 쉬웠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도 애송하는 시 가운데 하나다. 만해의 시는 밀도 높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소멸과 생성, 이별과 만남의 변증법적 극복 과정을 '님'으로 형상화했다.

대학 때는 김수영의 시를 많이 읽었다. 현실 비판의식을 미적으로 구현한 작품들이 다가왔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수영의 시를 접하면서 문학이 지닌 무한한 에너지에 주목했다.

최근에는 몽골이라는 나라에 필이 꽂혀 있다. 원나라 때 쓰여진 '몽골비사' 는 당대의 신화와 역사가 숨 쉬는 고전이다. 기회가 되면 몽골에 가서 작품의 영감을 얻고 싶은 바람이 있다.

그녀는 당분간 연재소설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가 원초적인 고향이므로 시 쓰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참이다. 그 어떤 글도 자신만의 진정성을 담고 싶다. 아마도 '끝났다고 노래했던 서른 잔치'는 '50대에 다시 시작되는 잔치'로 부상하지 않을까 싶다.

/서울=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문학의 오늘'에 연재 소설을 쓰고 있는 최영미 시인은 그 어떤 글도 자신만의 '진정성'을 담고 싶다고 말한다.

/서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응답하라! 2005

지난 2005년 1월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에 비상이 걸렸다. 재단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05 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18~11월3일)를 주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한데 대해 문광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문광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비엔날레 행사만 치를 수 있도록 한 재단의 정관에 위배되고 9개월 남은 상황에서 디자인 비엔날레를 준비하게 되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문광부의 예상치 못한 보이콧에 '당황한' 광주시는 부랴 부랴 재단 이사회를 소집해 정관변경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정관에 규정된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제4조 6항)의 내용에 '시 위탁사업포함'을 추가시켜 정관개정을 의결했다.

광주시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문광부는 "광주비엔날레 사업과 지자체 위탁사업의 회계계정을 분리해 운용하고 비엔날레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별도의 조직을 꾸려 운영해야 한다"며 조건부 승인을 했다. 여기에는 '세계 최초의 디자인 비엔날레'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술적' 차별성을 담보하겠다는 재단의 의지도 큰 몫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삶을 비추는 디자인'을 주제로 개막된 2005 디자인비엔날레는 '왜 광주가 디자인 도시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며 롱런을 예고했다. 디자인 마인드가 빈약한 광주에서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제시,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눈'을 뜨게 했다. 디자인 리빙페어들이 가전제품 등 단일 아이템을 주제로 한 이벤트인데 반해 디자인 비엔날레는 미학과 예술성으로 차별된 컨셉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디자인 비엔날레가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회를 거듭할 수록 '초심'에서 벗어났다.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본색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3일 막을 내린 2013 디자인 비엔날레는 그 결정판이다. '거시기, 머시기'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대회는 예산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맛'에 맞추느라 예술보다는 산업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다 보니 동시대 미학적인 이슈를 담아내야 할 비엔날레가 백화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품'들로 채워진 리빙페어로 변질됐다.

물론 '편안하고 재미있는 전시'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관람객(22만명 집계)은 지난 대회 보다 4만명이나 줄었다.

디자인 비엔날레의 창설취지는 새로운 담론과 미학으로 '디자인 발신기지의 광주'를 구현하자는 것이었다. 임팩트 없는 전시나 '거시기'한 컨셉은 더이상 비엔날레가 아니다. 재단은 '그해 가을' 왜 그토록 디자인 비엔날레를 고집했는지 되돌아 볼 때다. 지난 2005년 재단이 보여준 패기와 추진력이 새삼 그립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15일 서울서 '한일문화교류의 밤'

한일문화교류센터(회장 강성재)는 15일 오후 5시50분 서울가든호텔 2층 무궁화홀에서 '창립 20주년 2013 한일문화교류의 밤 in Seoul'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일문화대상 시상식 및 축하공연, 교류 만찬, 양국 전통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2013한일문화대상 수상자는 정치외교부문 이낙연·이주영 국회의원, 사회공헌부문에 김현재 삼흥산업개발 회장, 강인수 일본 야츠요병원 이사장, 가와즈히로아키 고와그룹 회장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부문에는 조충훈 순천시장, 국제교류부문에는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스포츠외교부문에 강수연 프로골퍼, 문화외교부문에는 가수 강진 등이 선정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오지호 작 '이원'

천경자 그림은 얼마

강연균 화백 등 210점…A옥션, 19일 금호갤러리

전문 미술품 경매 회사인 A옥션이 19일 오후 5시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올해 마지막 경매를 개최한다.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14~19일 같은 장소에서 전시된다.

이번 경매에는 남도미술 200년을 아우르는 근현대, 고미술품 210점이 선보이며, 추정가 총액은 25억여원에 이른다.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광주 출신으로 한국적 인상주의 회화를 추구한 오지호 화백의 '이원'(추정가 5000만~9500만원)과 '모란'(추정가 2500만~5000만원)이다. 또 그의 아들인 오승윤 화백, 제자인 황영성, 강연균 화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동양화에서는 소치 허련의 '육법묘운'(추정가 3000만~4500만원)이 눈에 띈다. 분홍빛과 연보라색의 철쭉을 소담하게 표현한 천경자 화백의 '철쭉'(추정가 1000만~1800만원)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쓴 휘호 '애국단심 실사구시'(추정가 1000만~1800만원)도 경매된다. 도상봉, 이대원, 윤중식, 하인두, 변종하, 사석원, 이왈종 화백들의 대표작과 겸재 정선 등도 선보인다. 문의 062-360-8436(금호갤러리), 02-725-8855(A옥션).

/김경인기자 kki@